해외건설협회
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
Korea Research Center for Overseas Construction

월 간 Vol. 22-07호

국제경제 및 에너지 시장 동향

DEC 30. 2022

정문빈 연구원
Tel.02-3406-1118

- 요 약 -

- 경제성장률 : 주요 국제기관들은 고물가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
- 인플레이션 : 글로벌 물가 상승압력은 다소 완화되었으나, 부분적으로는 경직적 물가수준 관측
- 원유 : 글로벌 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가격 하락 및 $80~90/barrel 대 박스권 형성 전망
- 천연가스 : 증가하는 천연가스 생산량 등으로 가격 하락 및 현 수준 대비 추가 하락 전망

국제경제 동향

□ 경제성장률

○ 주요 국제기관들은 고물가 상황 지속, 신흥국 금융 취약성 부각 등을 세계 경제 주요 리스크요인*으로 지목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락 전망함

-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는 11월 경제전망을 통해 '2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.2%로 전망함. 이는 올해 6월 예상치인 2.8% 대비 0.6%p 하향 조정한 수치임

- IMF(국제통화기금)는 10월, '23년 전체 회원국 대상 세계경제성장률을 2.7%로 전망함. 이는 올해 4월 예상치인 3.6% 대비 0.9%p 하향 조정한 수치임

* **OECD 주요리스크요인** : ① 에너지 공급 차질 및 '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, ②금리상승에 따른 신흥국 부채 상환 불가 등 금융 취약성 부각, ③식량 수급 불안 등
IMF 주요리스크요인 : ①식품·에너지 추가 충격 등으로 인한 인플레 장기화, ②신흥국 부채 취약성, ③러시아산 가스 유럽공급 중단, ④상반된 지표에 따른 과잉·과소 통화정책 및 강달러 등
※ 참고 : ADB 아시아개도국 '23년 경제성장률(%), 5.3(22.04) → 5.2(22.07) → 4.9(22.09) → 4.6(22.12)

* 그동안 발간하던 '국제경제 및 에너지 시장 동향' 보고서는 국제경제 및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듬에 따라 '23년부터는 분기 1회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발간 할 예정임

<표-1, 그림-1> 주요기관의 '23년 세계경제전망치(%, 좌) 및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그래프(우)

OECD ('22.11월)	IMF ('22.10월)	한은 ('22.11월)	KIEP ('22.11월)
2.2(△0.6)	2.7(△0.9)	2.2(△0.7)	2.4(△1.2)
IB 평균* ('22.12월)	**Bloomberg** ('22.11월)	**Fitch** ('22.12월)	**S&P** ('22.11월)
1.93	2.1	1.4	1.5

주 1. IB : 모건스탠리, 골드만삭스, 바클레이스, 제이피모건, BNP 파리바, UBS, BofA, 크레딧 스위스, 도이치뱅크, 시티, 웰스파고
2. 노랑 : 세계 경제성장률, 2. 빨강 : 주요국 경제성장률, 3. 파랑 : 신흥개도국 경제성장률 4. 점도표 : 예상

* 출처: 각 기관 자료(그림 : IMF)

□ 인플레이션

○ 글로벌 긴축기조 강화로 연초부터 지속된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금리탄력성[2]이 낮은 서비스물가의 경우 아직 완화 폭이 크지 않음

- 긴축기조 강화에 따른 여파로 신흥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 현재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

- 상품물가 폭은 하락하고 있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서비스물가 폭이 꺾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*

*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내 서비스 부문(YoY, %) : 6.1(22.08) → 6.8(22.09) → 6.7(22.10) → 6.8(22.11)
한국 소비자물가지수 내 서비스 부문(YoY, %) : 6.8(22.08) → 7.3(22.09) → 7.8(22.10) → 8.6(22.11)

<표-2, 그림-2> 원자재 가격 현황(좌) 및 미국소비자물가 그래프(우)

	에너지	비에너지	귀금속
22.08	172.77	78.05	103.81
22.09	158.17	74.16	97.77
22.10	146.17	70.83	96.09
22.11	139.60	72.30	100.92

주 1. 에너지 : 원유(두바이, 브렌트, WTI), 천연가스(유럽, 미국, 아시아), 석탄(호주, 남아프리카), 비에너지 : 식음료, 목재, 비료, 비철금속 등, 귀금속 : 금, 은, 백금

* 출처: WB, Financial Times

2) 금리탄력성 : 기준금리가 한 단위(25bp) 상승할 때 소비와 투자가 얼마나 축소되는지의 정도이며, 한국은행(2022)에 따르면 IT제조업 -> 비IT제조업 -> 비제조업 순으로 금리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

에너지 동향

□ 원유

○ (현황) 글로벌 경제 경착륙 우려, 중국의 봉쇄 지속 등으로 WTI유·브렌트유의 평균가격*은 모두 소폭 하락 중임

* WTI유 가격($/b) : 101.62(22.07) → 93.67(22.08) → 84.26(22.09) → 87.55(22.10) → 84.37(22.11)
브렌트유 가격($/b) : 111.93(22.07) → 100.45(22.08) → 89.76(22.09) → 93.33(22.10) → 91.42(22.11)

- 상기 두 가지 이유 외 OPEC+ 감산, EU의 유가상한제 등 對러 제재 등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○ (전망) EIA에 따르면, '23년 국제유가는 지속 하락 후 2분기부터 원유 재고 부족 우려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았으나, 이후 일종의 가격 박스권**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

* WTI유 가격 전망($/b) : 83.0(23.1Q) → 87.4(23.2Q) → 88.0(23.3Q) → **87.0(23.4Q) "$83~87/b 수준"**
브렌트유 가격 전망($/b) : 89.0(23.1Q) → 93.4(23.2Q) → 94.0(23.3Q) → **93.0(23.4Q) "$89~93/b 수준"**

- EIA는 상승·하락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'23년 브렌트유 평균가격을 $92/b로 예측함

<표-3, 그림-3> 원유 현황 및 전망 표(좌), 그림(우) (단위 : $/b)

구분	22.11	22.12*	23년			
			1Q	2Q	3Q	4Q
WTI	84.37	75.82	83.0	87.4	88.0	87.0
브렌트유	91.42	81.46	89.0	93.4	94.0	93.0

주) WTI 및 브렌트유 12월 가격은 최신 공시 데이터(22.12.21 기준)까지의 12월 평균가격임
* 출처: EIA(미국에너지정보청)

□ 천연가스

○ (현황) 증가하는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, 높은 재고수준 등으로 인해 천연가스 현물 가격은 하락* 중임

* 미국 천연가스 가격($/MMBTU) : 7.28(22.07) → 8.80(22.08) → 7.88(22.09) → 5.66(22.10) → 5.45(22.11)

- 하지만, 겨울 난방 수요, 프리포트 LNG 터미널 오픈(1월 중 예정)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은 천연가스 가격에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

○ (전망) EIA에 따르면, '23년 천연가스는 미국 LNG 산업의 성장 등에 힘입어 기존 수준을 상회하는 가스 생산 증가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

<표-4, 그림-4> 천연가스 가격(좌) 및 생산량(우) 전망

구분	22년		23년			
	3Q	4Q	1Q	2Q	3Q	4Q
천연가스	7.99	5.82	6.17	5.00	5.18	5.3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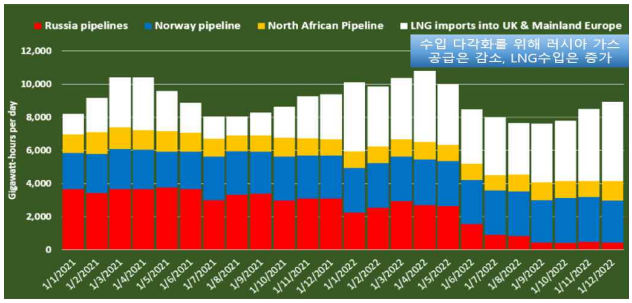
주 1. 가격은 $/MMBTU이며, 미국 Henry Hub 기준

주 2. 생산량(Million Cubic Feet per day) : 118,552(22.06) → 119,032(22.07) → 119,194(22.08) → 120,594(22.09)
재고수준(Billion Cubic Feet) : 2,251(22.06) → 2,457(22.07) → 2,640(22.08) → 3,106(22.09)

* 출처: EIA(미국에너지정보청)

○ (유럽)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(Dutch TTF 기준)*은 수입 다각화에 따른 높은 천연가스 비축량, 예상보다 온화한 날씨 수준 등에 따라 러-우 전쟁 전 수준으로 하락

<그림-5, 그림-6> 천연가스 가격(좌) 및 생산량(우) 전망



주 1. 유럽의 LNG 수입 관련, '22년 상반기 유럽의 총 LNG 수입량의 47%를 미국이 공급함

* 출처: FT, Reuters

프로젝트 동향[3]

○ 10~11월 금융종결[4] 기준, 금액별 1위 프로젝트는 캐나다 챔플레인-허드슨 파워 익스프레스(Champlain Hudson Power Express, CHPE)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로 56.4억불 규모의 사업임

- 그 외 프로젝트로는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(51.1억불), SK온 헝가리 이반차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(20억불) 등이 있음

<표-5> PFI 기준, 10-11월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

프로젝트명	국가	규모 (억불)	공종	비고
캐나다 챔플레인-허드슨 파워 익스프레스 송전선 프로젝트	캐나다	56.4	발전	- 뉴욕시의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를 위해 캐나다 퀘백의 수력발전소와 뉴욕을 잇는 송전선 건설
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	미국	51.1	석유화학	- DL이앤씨의 미국 내 첫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수주 건 - 발주처(쉐브론 필립스 케미컬)의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Track Record 구축 - Feed(기본설계) to EPC 사례
SK온 헝가리 이반차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	헝가리	20	산업	-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의 유럽향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 공사
제미니 해상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	네덜란드	15.5	발전	- 600MW 규모의 대형 풍력발전단지
Budaun-Hardoi 고속도로 PPP 프로젝트	인도	12.5	교통	- DBO(Design-Build-Operate) 방식의 PPP 프로젝트

* 출처 : PFI League table

3) 프로젝트 동향은 영국 톰슨파이낸셜 그룹의 PFI(Project Finance International)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됨
4) 정홍식(2015)은 금융종결을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금융계약 체결 후 자금조달 업무의 마감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계약상 나열된 선행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 대출금이 차주인 프로젝트회사에 지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함